현대불교 지령 100호 특별 인터뷰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

남 속이지 않는 삶 '무소유의 시작'

이랫 마을과 평균 9도의 기온차이가 난다는 영축총림 통도사는 추색이 완연하다.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경내 정변전(正徧殿)은 만추의 쪽빛 하늘을 이고 있었다. 본지 지령 100호를 맞아 종정스님 특별대담에 나선 지난22일 기자의 시선을 가장 먼저 잡은 것은 정변전 한 귀퉁이에 가지런히 쌓아 모아져 있는 불교계 신문들이었다. 종정스님은 불교계 신문이 부처님 모습과 소중한 가르침을 담은 것이라며 이렇게 따로 모았다가 더이상 보관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태운다고 시자스님이 귀띔한다. 불교언론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또 불교언론을 대하는 독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헤아리게 한다.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의 축하 휘호

"마구잡이 환경개발 원천봉쇄 해야 합니다"

언론은 건전한 대안 제시해야 '사회의 목탁'

—스님, 지난해 본사에서 주최한 방장스님 친견법회 이후 1년여만에 뵙습니다. 그때 스님께서는 부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는 것은 바르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신년 법어를 통해 남을 이롭게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살이를 하면서 스님 말씀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에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가 들어있습니다. 굳이 뜻풀이를 하자면 정직하게 사는 것은 남속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사는 것이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정당하게 왜곡되지 않게 행하라는 것이지요. 평범한 얘기 같지만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모아야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방법이라면 방법이겠지요. 물론 가진것이 많아 베풀어 주면 더욱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아마도 더 어려운 일일게요.

—무소유를 가르치시며 1발1의로 평생을 사신 부처님의 제자로 어떻게 부처님을 닮을까가 여간 고민스럽지 않습니다. 세속에서 생활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무소유정신을 실천해야 하는지 일러주십시오.

▲무소유는 출가 수도인들이 할 수 있지, 보통의 재가자들은 달리 이해해야 할 것이지요. 더구나 세상구조가 "주먹을 도끼삼아 설치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들다"할 정도로 각박합니다. 따라서 사회의 생활인들은 욕심을 버리고 남에게 해 끼치지 않는 것을 무소유의 잣대로 삼으면 될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하다는 것은 물질이 넉넉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넉넉할 때 진정 넉넉한 것이지요. 그것은 쉽게 말해 남보기 급급해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 여기면 될것입니다.

—스님 화제를 종단 일로 돌려보겠습니다. 개혁종단이 들어선지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불교가 달라져야한다는 사부대중의 간절한 염원속에서 창출된 개혁종단의 2년을 어떻게 지켜보시는지요.

▲개혁종단이 舊 체제와는 달라지려고 애쓴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기틀을 잡는데 노력을 기울이고는 물러나와야 합니다. 틀잡고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끌고가기까지 하는 것은 수행인의 근본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과거와 크게 다를바 없다는 소리도 나오는 것이고, 종도들도 별 신명이 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사찰들은 지역개발 바람에 환경훼손이 심각합니다. 지자체 실시이후 더 급속히 퍼져가고 있는데요. 사찰 수행환경과 지역개발 논리가 상충되고 있는 현실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질이 정신을 황폐화해가는 현상의 하나입니다. 그와 같은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종토세 토초세니 하는 사찰세금부과 문제등을 보아도 참으로 민족의 앞날을 걱정스럽게 합니다. 더욱 한심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일제때도 언감생심 발상조차 못한 일들이 마구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어떤 명분의 개발이든 사찰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하며, 이를 위해 책임자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불교가 국민심성과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종교적 기능 뿐만 아니라 현재 자랑스런 유적지와 문화재가 바로 환경을 지켜온 사찰이라는점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스님 무장공비사건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남북한 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통일논의는 뒷걸음질 친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무장공비 사건은 북한의 남침야욕을 노출시킨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이다. 그러나 국민이 더욱 걱정하고 문제삼는 것은 우리 정부의 국방태세입니다.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침투한 무력도발이라고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는데는 정부의 국방소홀 책임도 큽니다. 통일문제는 내 생각으로는 쉽지않다고 봅니다. 남북이 모두 한결같이 통일해야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그것이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 결국 빠른 시일내의 통일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민족을 위해 하나로 합치고자 하다면 현재의 남북이 모두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게지요.

—본지는 올 1년 내내 '새싹불자를 키우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불교를 제대로 알고 차세대의 주역으로 자랄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 등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었습니다. 청소년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방안은 무엇인지요.

▲청소년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통이자 국시처럼 삼았던 효(孝)사상을 팽개치고 서구풍속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르고 핵가족제도라 해서 앞다투어 조장한 것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들이니까요. 자업자득인 셈이지요. 이제부터라도 부모와 가정이 은혜를 배우고 인생의 의지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스님, 끝으로 지령1백호를 맞는 현대불교 언론이 해야할 일에 대해 들려주십시오.

▲불교언론이냐 아니냐를 떠나 요즘 신문 잡지 등 참으로 언론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언론다운 언론은 찾기 힘듭니다. 한결같이 개인이나 단체 국가일에 대해 후벼파고 못쓰게만 해놓습니다. 그런 언론이라면 무익합니다. 현실을 심층적으로 진단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할때 비로소 언론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스님, 바쁘신 가운데 대담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담 : 위영란 부장

시 론

사찰환경 훼손은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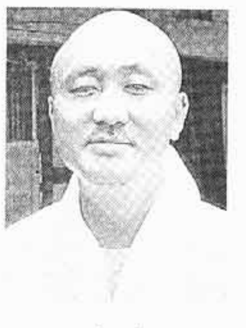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의 문화사회부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사찰 환경훼손이 심각한 사례가 약 50여 곳으로 밝혀졌다. 세계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있는 해인사가 자리한 가야산에 골프장을 건립하기 위해 수십간평의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비롯해서 법주사 주위에 온천개발과 함께 위락단지 조성, 평택시 심복사 주위에 쓰레기장을, 부산 선암사 입구의 택지 개발 , 범어사 앞을 통과하는 고속철도등 그 숫자와 내용이 실로 심각하다. 사찰의 환경은 시대적으로 항상 훼손의 위협을 받아왔다.

정신문화 황폐화 초래

6·25이후에는 서구 논리인 미신 우상타파가 또한 문화유산을 파괴해왔고 개발독재 시대에는 사찰을 관광화 시키면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스님들의 수행환경을 크게 훼손 해 왔다. 독재정권은 권력으로써 환경을 파괴시켰지만 민주화의 지자제 정부시대에는 개발 논리와 자본이 또한 수행환경과 자연·문화재 환경을 크게 파괴시키고 있다. 독재권력의 무력 앞에서 무기력했던 기억은 그대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자본이라는 큰 힘과 개발 이익만 바라는 경제 논리의 힘앞에서 또한번 힘을 잃게 되는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불교의 사찰은 다른 환경과 또다른 특성을 갖고있다. 사찰은 승가(僧伽)가 모여 사는 곳이다. 실은 그릇되게 살았던 삶을 이제 바로 살겠다는 생각을 먹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수행처이다. 따라서 첫째로 수행환경이 파괴되어서는 안된다. 관광지로개발되어 설사 사찰에 조금 경제적인 이익이 온다 손 치더라도 수행환경이 파괴되어서는 근본을 잃게 되는 것이다. 수행환경의 파괴는 정신문화의 황폐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끝내는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문화환경의 훼손이다.

한국 정신문화가 담긴 문화재들은 우리의 뿌리를 알게하는 중요한 유물인 것이다. 문화재의 훼손은 누구에 의해서도 자행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비록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일단 파괴되면 그는 역사성을 다시는 복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이러한 유산을 둘러싸고있는 주변환경에 대한 파괴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찰 주변의 수목과 맑은 물과 깨끗한 계곡, 청량한 공기, 훼손 되지않은 산맥등은 말그대로 조상이 물려준 보물이며 다음세대에 물려 주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진 옥

〈환경련 여수·여천 준비위원장〉

한시대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영원히 복구 될 수 없는 수천년에서 수만년 동안 형성되어온 하나의 정신과 영혼이 담긴 문화재와 그환경들을 파괴하는 행위는 바로 범죄행위 그 자체이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문화 유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불교유산이고 국민 휴식시설의 대부분이 사찰이 지켜온 문화재와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피땀흘려 보호하고 가꾸어 왔기때문이다.

후손들을 생각해 보자

어떤 이들은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항상 대립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 지금의 개발은 기본적으로 그 문화환경의 특성과 자연의 존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이를테면 사찰이라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관광위락 단지, 온천등의 시설을 하여 사찰 기본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무지와 몰이해에서 파괴는 진행되는 것임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곧바로 30년 정도의 미래를 보자. 우리 자손들에게 파괴된 산야와 오염된 물과 공기 고철과 시멘트 덩어리의 구조물들을 유산으로 줄 것인가, 울창한 숲과 맑은 물과 공기 잘 보존된 문화재들을 줄 것인가. 판단은 자명하다.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 한 사람이 수백만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에 근거를 두더라도 정신문화 환경 파괴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을 잃는 것이 되는 것이다. 서로 존중해야지 서로파괴해서는 안된다. 정신, 문화, 자연 환경의 훼손은 결국에는 나를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왜냐하면 인연의 연결고리는 결코 그 환경들과 나를 둘로 구분할 수 없기때문이다. 나라는 존재는 환경과 항상 둘이아닌 하나이고 더불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내가 생명이며 자연도 생명이며 그들이 살아 있다는 것이 바로 내 삶의 확인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불교는 그동안 이러한 생명의 차원에서 정신과 문화 자연환경을 지켜왔기에 지금의 찬란한 유산을 갖고 있음도 알아야 할 것이다.

봉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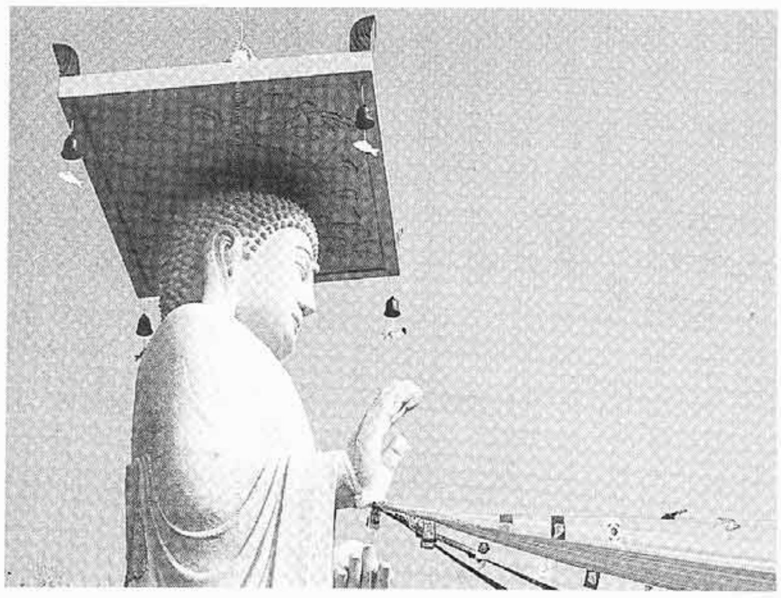
1997학년도 대학입시생 합격발원 촛불기원 법회 및 삼천배 철야정진 기도

대입 학력고사를 앞둔 입시생과 부모가 함께 촛불 공양 올리며 발원하는 법회입니다.
시험 공부에 지친 자녀들이 청량한 부처님 법문으로 힘을 얻고 부처님의 가피와 부모님의 애틋한 마음을 확인하는 감동의 법석이 마련됩니다.

합격발원촛불기원법회

■ 일시 : 불기2540년 11월 2일 (토) 저녁 7시

■ 장소 : 봉은사 대웅전 앞 석가탑 주위



"예배한다는 것은 공경하는 것이며 굴복하는 것이다. 참된 성품을 공경하는 것이며 무명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지난 '84년 이래 매년 꾸준히 봉행해온 삼천배 철야정진 기도는 봉은 불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는 지극하고도 절절한 수행입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 참회하고 불퇴전의 정진을 다짐하는 시간, 공경과 굴복으로 법열을 맛보십시오.

삼천배 철야정진 기도

■ 일 시 : 불기2540년 11월 9일 (토) 저녁 7시부터 10일 (일) 새벽 4시까지

■ 장 소 : 봉은사 대웅전 및 각단

■ 기도비 : 1만원

■ 준비물 : 108 염주, 기도 보자기

■ 접수및문의 : 종무소 ☎(02)511-6070~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대한불교조계종 봉 은 사
주지 무상 합장